

경제 프리즘

광주·전남 아파트 매매값 다시 '꿈틀'

전영만 국립전파연구원장 취임



전영만 전 서울전파관리소장이 16일 제6대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제6대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전영만 원장은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정보통신부 공주우체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방송정책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영만 원장은 16일 국립전파연구원 내 주청사 빛가람전파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용현 기자

광주 0.08%·전남 0.04% 소폭 상승 8월 아파트 입주여건 여전히 '흐림'

폭염과 휴가철로 소강상태에 있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또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8월 아파트 입주여건을 보면 기존 주택매각 지연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감정원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주 0.08%, 전남 0.04%로 각각 올랐다. 광주는 ▲광산구 수완지구 0.22%,

남구 0.15%로 신축아파트 인기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남에서는 ▲여수 0.07% ▲순천 0.04%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여수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투자유치 및 수요 증가로, 순천은 선호도 높은 신규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서울 0.05% 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남 0.04% ▲대구 0.02% ▲광주 0.01% 순으로 상승했다. 광주는 지난해 -0.02% 하락에서 상

승으로 전환됐고, 전남은 0.00%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남에서는 순천 0.08%로 크게 올랐다. 순천은 입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거래가 점차 늘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광주·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 아파트 입주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8월 입주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60선에 머물며 입주여건의

어려움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8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를 보면 이달 전국 HOSI 전망치는 66.3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60선이 지속돼 입주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에 있는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입주 경기가 좋음을, 이하면 나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광주 HOSI전망치는 66.6으로 전월 60.8에 비해 5.8포인트 상승했다. /서미애 기자

전남도 64.7로 전월 60.0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실적치도 광주는 56.5로 전월 54.1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했고, 전남도 55.5로 전월 50.0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했다. 7월 광주·전라권 입주율은 69.9로 전월 76.0보다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입주 예정가구의 70% 정도가 ▲기존 주택매각 지연(36.6%) ▲세입자 미확보(31.0%)로 입주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잔금대출 미확보(16.9%)는 4월 11.5%, 5월 12.0%, 6월 16.5%에 비해 높아졌다. 한편 8월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개 단지 719가구, 전남은 17개단지 427가구로 나타났다. /서미애 기자

광주노동청, 추락 예방 캠페인

광주고용노동청은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16일 광주 남구 효천1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밀집지역에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8월) 중에 자율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한 캠페인이다.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부비계 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간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원청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한전KDN, 토종닭 백숙 대접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최근 1차·1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나주 다시면 묵암2리 랑동마을을 지역주민과 소통과 화합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연이은 폭염속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보양식(토종닭 백숙)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양재 인사노무처장은 "지난해 5월 한전KDN과 랑동마을이 1차·1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 9월 추석맞이 농촌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한 한전KDN은 랑동마을의 요청에 따라 올 가을에 42세대를 대상으로 넓은 형광등을 에너지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봉사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꿈 간직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삼성전자, '드림클래스' 수료식

삼성전자는 전국 6개 대학에서 '2018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드림클래스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고 강사로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삼성 대표 교육 사회공헌 사업이다. 수료식에서 이인용 삼성사회봉사단장은 "캠프에서 배운 것을 학교에 돌아와서도 잘 실천해 본인 꿈과 희망을 이루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올해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은 대학생 강사와 합숙하며 공부 자신감을 키웠다. 드림클래스는 중학생 10명당 대학생 강사 3명이 소규모 반을 이루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고 학습 소통이 자유롭다. 올해 드림클래스 참가 학생은 캠프 입소와 수료 시점에 각각 실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평균 20점 성적 향상 효과를 거뒀다. 또 대학생 강사가 전공을 소개하고 중학생은 희망 전공을 찾아가 설명을 듣는 '대학 전공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삼성드림클래스는 캠프에 참가해 도움을 받았던 중학생이 대학생으로 성장해 강사로 참가하는 '교육의 선순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서울·경기 및 6개 광역시와 전국 7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2학기 드림클래스 주중주말교실을 개강한다. 올해 상반기 드림클래스 주중주말교실에는 전국 186개 학교 중학생 6,475명과 대학생 강사 1,577명이 참석한 바 있다. /서미애 기자

한전, 3년 연속 미국 'CIO 어워즈' 수상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오후 7시(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란초 팔로스 버디스(Rancho Palos Verdes)에서 열린 제31회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100 어워즈'에서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참가한 400여개 기업·기관이 경쟁을 펼친 끝에 한전,

지멘스, IBM, 캔자스시티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기업 중 유일한 국내 기업인 한전은 전 세계 전력회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CIO 어워즈를 수상했다. 한전은 '디지털변환 공용플랫폼 정책·기술 개발'로 유틸리티 분야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CIO 어워즈를 수상했다. /서미애 기자

기아차, 초등생 초청 환경·안전캠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여름방학을 보내는 지역 초등학생을 초대해 환경·안전 캠프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들은 연간 자동차 생산량과 차종 등 기아차 광주공장 현황을 소개 받았다. 또 소울을 생산하는 1공장을 견학하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했다. 공장 생산교육센터에서는 환경보호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에 참가하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안전 골든벨 퀴즈를 풀었다. 전남강진의 안전교육종합체육관으로 이동해 교통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어린이 134명이 참석한 캠프는 지난 13일 문을 열었고, 인원을 나눠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서미애 기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을 초대해 환경·안전 캠프를 열었다.

1면 '광주은행' 서 계속

북구 한 주민은 "가뜩이나 간판도 바뀌어 눈에 띄지도 않는데 자동화기기도 지점과 함께 2층으로 옮겨져 한밤중에 이용하는 게 가장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역 내에서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수도권 점포 수를 늘리는 등 JB금융그룹의 몸집을 키우는 데 일등공신으로 공헌했다. 올해 상반기 JB금융지주 전체이익 1,864억원 가운데 50% 가까운 907억 원을 광주은행이 실현 했으며, 230건의 개인대출 가산금리 적용을 오류하는 등 영업이익 창출에 올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노조는 광주은행이 항도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명 변경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지역 은행으로서 위상정립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사명변경과 사회공헌, 직원복지 등을 이사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이 항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을 모태로 2014년 JB자산운용 인수에 이어 올해 광주은행을 완전 편입 하면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 4개의 자회사를 둔 총 자산 48조 원의 금융지주사로 성장했다.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사설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월간 전남매일
 구독문의 062) 720-1006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정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오피스텔
급매합니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능
 ■ 관리비 저렴, 사무실전용
 ■ 2층, 38평, 9400만원
 3층, 38평, 8400만원
 7층, 53평, 1억1400만원
 8층, 33평,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7월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